

해설 시나리오

프로그램명	선정암 삼매경
-------	---------

해설주제	세부 시나리오
서론	<p>안녕하세요, 해설사 강연지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만연사에 이어서 이곳 동부사 무소의 사찰에 대해 알아보셨고, 또 지금부터 선정암에 대해 한번 알아보실텐데요, 다들 사찰에 오실 때 기본 예절은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발 디딜 때 조심하세요,</p>
본론	<p>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산자락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을 다녀보셨을 텐데요, 이곳 무등산만 해도 광주 도심에 자리한 증심사도 있고, 이곳 화순지역에는 만연사와 고지대에 위치한 규봉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사찰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수행하기 적합한 자연 속에 자리하기도 했습니다.</p> <p>사찰의 한자 풀이를 보면요, 말 그대로 절 사 터와 절 찰첩자를 썼습니다. 초기의 사찰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동 주거의 성격을 띠었다고 합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제 뒤로 큰법당(대웅전)이 있고, 저쪽에는 스님이 기거하시는 방과, 공양간이 있습니다. 절의 가장 많은 존칭, 석가모니를 모신 곳을 대웅전, 큰법당이라고 합니다.</p> <p>사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, 공동주거적인 성격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장소로 승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대개 이러한 절을 부르는 곳은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절이라고 부른답니다.</p> <p>첫 번째는 불보, 법보, 승가공동체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, 불보는-즉 부처님을 뜻하고, 법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, 말씀을 뜻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승가공동체를 뜻합니다. 이 세 가지 삼보가 갖추어진 곳을 절이라고 합니다.</p> <p>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!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시대 때 불교를 공인하였을까요? 그렇습니다 고구려시대 소수림왕 375년입니다. 그 당시 최초로 세워진 이불란사, 초문사라는 최초의 사찰이 있는데 현재 그 위치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지만 아마 만주지역쯤으로 추정됩니다.</p>

해설 시나리오

프로그램명	
-------	--

해설주제	세부 시나리오
선정암 禪定庵	<p>이곳 선정암입니다. 선정암은 만연사에 딸린 작은 암자를 말하는데요 이 현재 화순에는 선정암 뿐만아니라 성주암도 있기도 합니다. 예전에는 그 동구리 저수지 밑에 있는 성주암까지가 절터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, 또 엄청나게 컸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?</p> <p>선정암의 선정이라는 뜻은 참선하여 삼매경에 이른다 라는 뜻을 말합니다. 즉, 마음이 하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. 쉽게 생각하면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이기도 하죠. 마음을 닦고 생각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. 절에 가면 연꽃그림이 굉장히 많은데, 연꽃이 상징하는 것은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것을 보고 청정을 상징하고요, 또 부처가 이 연꽃위에 앉아 있고, 잎 하나 하나가 100억개의 나라라고 생각해요, 그래서 극락왕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</p> <p>참선이나, 삼매경 어렵지만 다른 생각은 접어두시고 안으로 들어가볼까요? 법당은 가운데 석가모니가 계시고, 왼쪽에는 지장보살, 지장보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입니다. 오른쪽에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. 이 관세음보살님이 나무로 만든, 조선시대 제작으로 추정되는 좌상인데, 보살이라는 것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,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.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살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.</p> <p>그 뒤로 배경을 보시면 탕화가 있는데 보통 8대 제자와 10대 제자를 그립니다. 간혹 탕화 귀퉁이에 사천왕을 그려 넣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따로 왼쪽에 보시는 신중탱에 따로 그려 모셨다고 합니다.</p> <p>올해 1월 1일날 점안식을 했다고 합니다. 원래는 약식이었으나 표준탱으로 39분의 신을 다 그린 그림이기도 합니다. 여기에 동서남북 신, 까지 더해 총 50분이 넘는 신이 모셔진 아주 큰 규모의 탕화이기도 합니다.</p> <p>이 그림의 특징은 물감이 돌가루로 석채로 그린 것입니다. 따라서 이 그림이 오래 300년까지도 보존될 수 있는 물감이기도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들고, 아주 오래된 장인들이 미리 사두었던 것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. 여기 가운데 보시면 금강신이라고 있습니다. 번갯불을 가지고다니는 자를 의미합니다.</p> <p>그리고 이 그림 뒤로 보시면 독성탱 그림이 있고요, 신선을 그린 신선탱, 그리고 북두칠성을 신으로 형상화한 칠성탱이 있습니다.</p> <p>보통 불교신자들은 잘 아실 테지만, 죽은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 죽은 날로부터 7일마다 7회에 걸쳐 행하는 의식입니다. 이 49일 동안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해서 재를 지내고요, 앞에서 만연사 명부전 보셨죠?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는 날이 49일 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.</p> <p>이곳 선정암에는 독성탱이라는 나반존자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. 면에 채색하</p>

였으며 독성은 석가모니의 열여섯 제자 중에 한명입니다. 독성은 바위에서 자란 커다란 소나무 아래 둥그렇게 생긴 초석을 깔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뒤예를 보시면 경책이 쌓여있고, 목죽과 새가 그려진 병풍이 세워져 있지요? 또 보시면 멀리 폭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아 산 속임을 짐작케 합니다.

이곳 선정암의 독성탱은 1916년에 제작되었습니다. 그 시대는 네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. 이 불화를 그린 남곡세섭과 초암세섭은 그 시기 활동한 그림을 그리는 승려였습니다. 이곳 화순뿐만 아니라 경기도 여주, 여수 등에 각각 그림을 그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.

2Page/3page

해설 시나리오

프로그램명	
해설주제	세부 시나리오
<p>목조 관음보살좌상 木造 觀音菩薩坐像</p>	<p>잠시 이동하여 이곳 목조 불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나무로 조각 된 불상입니다. 제작된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. 이유는 복장이 원형으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. 추측하건대 제작 수법으로 보아 17세기 후반, 삼인이라는 사람의 작품과 유사성을 띠어 17세기로 추정되는 것입니다.</p> <p>이 관음보살좌상은 중생을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관음보살을 표현한 상 像입상입니다. 머리에는 꽃과 화염문(불꽃무늬)이 장식된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. 얼굴에 표현된 모습(가는 눈과 얇은 눈썹 등)이 조선시대 조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붙이고 다리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. 위로 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뜻을 가졌지요.</p>
맺음말	<p>기존에 사찰이라는 곳에 다니다보면 각 건물의 이름도 불화의 그림도 모두 다릅니다. 이처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짧지만 세심하게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보시고 조금 더 명확히 오래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 문화라는 것도 이처럼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! 자 그럼 다시 왔던 길로 조심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~!</p>
3Page/3page	